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지역단위 실행력 강화

도, 사회적경제위원회 열고 시행계획 심의
2060억원 규모 4대 분야 51개 시책 추진

전북도가 '2021년 전북도 사회적경제 시행계획' 심의와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사회적경제분야 전문가와 함께 '전북도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2021년 전북도 사회적경제 시행계획'은 전북도 사회적경제 기본계획(2020~2024)에 근거한 연차별 시행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체계적인 성장지원을 위한 2,060억원 규모의 4대 분야 51개 사업을 담았다.

지난해에 선정된 5개 시·군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운영과 행정안전부 민·관 협업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소통을 이어나가고, 지역별 특색이 반영된 다양한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지역단위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기업 사무장(35명)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250여명)

를 양성해 사회적경제 사업장에 배치할 계획이며, 사회적기업가(30팀)를 지속적으로 육성, 예비사회적기업 진입 등 취·창업에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비대면 소비시대를 맞아 온라인, 홈쇼핑 판매지원과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설립 추진 등 안정적 유통망 확보 및 판로 다양화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성장을 돕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홍보활동과 공동판매장 운영 지원으로 민간소비를 촉진한다.

성장기업 육성과 기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및 사업개발비 지원 등(72개사)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금융지원과 관련,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점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금을 조성·운용(5억원)하고, 지역자산화 이차보전 등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회적경제 집적공간인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오는 3월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우범기 정부부지사

지난해 공유경제 온라인 플랫폼이 구축됨에 따라, 올해에는 공유자원 추가 발굴과 콘텐츠 제작 등 플랫폼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유경제 학습동아리, 공유실용실 운영 등을 통해 공유경제 인식개선과 공유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개최(7월초, 사회적경제주간)할 계획이며, 사회적경제 인식개선 교육,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센터 운영 등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사회적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범기 전북도 정부부지사는 "사회적경제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우리사회와 공동체의 문제해결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들을 통해 도내 전반에 사회적가치가 구현되도록 민간과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시... 전북 탄소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가 정부로부터 공식 지정 받은 23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식에 성윤모 산업부장관과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5개 도시사들이 지정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새만금 해수유통 이후 환경변화 대비를”

민주 김윤덕 의원, 국토교통위 업무보고서
“국민 위한 새만금 기본계획 만들어주길 바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 갑)은 지난 22일 열린 2월 임시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양승모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새만금 국제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과 “새만금 해수유통” 이후 환경변화에 대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김윤덕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앞서 건설이 확정된 새만금 국제공항이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된다”며 “정치적 논리와 표 쟁점을 떠나 합리적인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경우 오히려



김윤덕 의원

속도를 내서 조기착공과 개항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려하는 부분은 잘 알고 있다”면서 “재정 당국과도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는 바, 기존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김 의원은 ‘새만금 해수유통’과 관련해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과 관련 불필요한 논란을 떠나 사실상 해수유통의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새만금청이 주도적으로 해수유통 이후 새만금의 미래를 그리는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의 해수유통은 친환경적 개발과 성공적인 스마트수변도시를 위해 꼭 필요해 보인다”며 새만금의 미래를 주도할 새만금청이 자금부터 준비할 것을 촉구했다.

김윤덕 의원은 “24일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로운 새만금 기본계획안이 의결된다”며 “검토된 내용들을 토대로 국토부 장관과 새만금청장은 국민을 위한 새만금 기본계획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민주 김수흥 의원 “한국은행
경기회복에 적극 역할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 갑)이 한국은행의 새해 첫 국회 업무 보고에서 “미증유의 위기 대응에 한국은행은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며 “확장적 재정 기조에 보조를 맞춰 민생경제 회복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둘 것”을 주문했다.

김수흥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년 업무 보고를 마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를 향해 경기 침체기의 재정 기여도와 한국은행의 역할을 주제로 질의에 나섰다.

김 의원은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4/4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큰 폭으로 줄고, 재산소득이 늘어난 점을 양극화의 방증으로 제시했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 등 공적 이전 소득이 소득 양극화를 다소 완화했다는 통계치를 제시하면서, 최대한 넓고 두터운 포용적 재난지원금 설계와 이에 대한 한국은행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김수흥 의원

SNS 플랫폼 운영자의 소비자 보호책임 강화

민주 이원택 의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SNS 플랫폼 운영자의 소비자 보호책임 강화를 통해 투명한 전자상거래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SNS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거래가 증가하면서 SNS 플랫폼 이용 소비자의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3,960건이었다.

의류·섬유신변용품, 정보통신기기 등의 물품뿐만 아니라 문화·오락, 교육 등의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



이원택 의원

의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불만·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배송지연·미배송’이 59.9%(2,372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해제· 청약철회거부’가 19.5%(775건), ‘품질 불량·미흡’이 7.0%(278건), ‘폐업·연락두절’이 5.8%(229건) 등이었다.

특히, 배송지연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 되도록 제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이원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자거래시판서비스 제공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통신판매업자 등의 신원정보 제공의무 및 관리책임을 부여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SNS 플랫폼 상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해소될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 “다양한 품목이 거래되는 SNS 플랫폼에서 배송지연·미배송 등 계약불이행 사례가 지속 발생해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온라인 판매업자의 신원정보 공개를 통해 소비자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투명한 전자상거래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동행 전북지역 방문 잇따라

국민의힘 호남동행 의원들, 현안 청취
설 명절 이후에도 군산·김제 등 찾아

국민의힘 호남동행 의원들이 동행 지역을 방문해 현안 사업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날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익산시, 이종성(비례대표) 의원은 완주군 등 해당 동행 지역을 방문해 지자체장과의 면담을 통해 현안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는 등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장수군 동행 의원은 장수군의 오랜 염원인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 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순창군 행복누리센터를 방문해 황숙주 순창군수와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송인석(경북 김천시) 전주시 동행

의원들은 지난 10일 전주시를 방문해 ‘엄마의 밤상’ 성금 500만원을 전달하고,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주-김천 간 철도 구축 협의 등 두 지역의 교류와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설 이후에도 동행 의원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지난 17일에는 송석준(경기 이천시) 의원이 군산시를 방문해 강임준 군산시장에게 지역현안을 보고받고, 군산시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군산신영시장을 방문해 송기업 시장 상인회장과 함께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18일에는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의원이 김제시를 방문했다. 박준배 김제시장과 주요 현안 사업 추진과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 기

업 감담회를 통해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정운천 의원은 ‘변화된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당 지도부는 물론, 호남 동행 의원들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있어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를 느끼고 있다’며 “그동안 말뿐이었던 호남 동행이 행동과 실천으로 옮겨지고 있는 만큼, 이제 호남에서도 진정성을 조금씩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운천 의원은 취약지역 비례대표 국회의원 우선추천제를 골자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당 소속 의원 85명의 동의를 받아 비대위를 통과시켰고, 24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취약지역 인사를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권 안에 25%를 우선 추천하는 것으로, 호남인재육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민간조사 전문기업

탐정 法人 해결사

가족 실종자찾기
민.형사 증거조사
개인.가족.기업 고민상담

010-5636-7755

907호